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공장조성 예정부지 문화유적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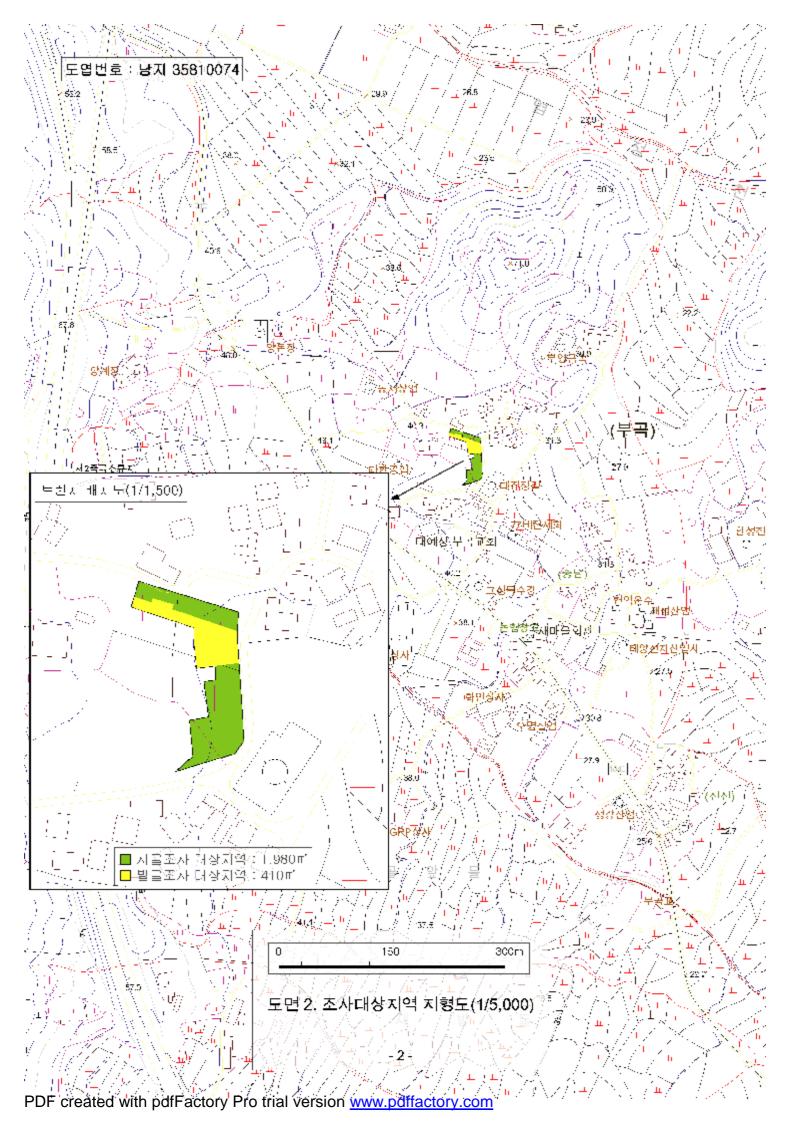
200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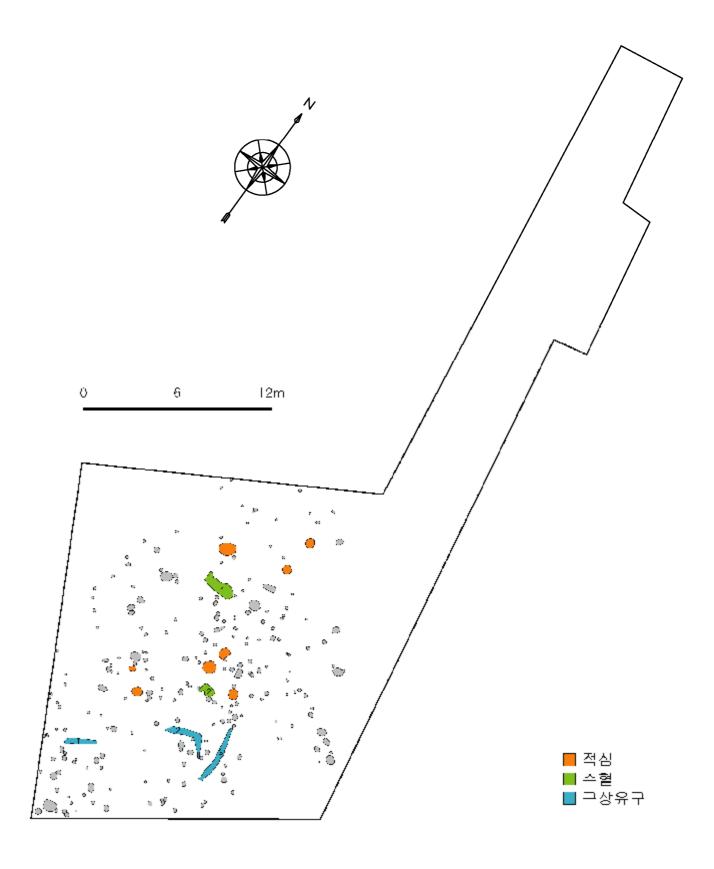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3. 조사대상지역 유구배치도(S=1/240)

I. 조사개요

1. 조사명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공장조성 예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2. 조사대상 지역

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297-1번지 외 3 (410 m²)

3. 조사기간

2007. 08.20. ~ 2007. 09. 06.

4. 조사기관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5. 조사단 구성

·조사 단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지도위원: 임효택(동의대학교 교수, 도 문화재위원)

박광춘(동아대학교 교수) 이동주(동아대학교 교수)

· 책임조사원: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조 사 원 :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사보조원: 이해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김경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실 습 생:조재윤(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2년)

6. 조사 의뢰처

혜림기업

Ⅱ. 조사경위 및 목적

조사대상지역은 혜림기업에서 추진 중인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공장조성 예정부지'로서 2007년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2트렌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적심 1기, 자기편과 옹기편이 폐기되어 있는 수혈 1기, 성격 미상의 적석유구 등이 조사되어 공사시행 이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유무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공사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Ⅲ. 조사대상지역 개관 및 주변의 문화유적 현황

1. 조사대상지역 개관

조사대상지역은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297-1**번지 일원이며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주혈 등의 유구가 분포하는 **410**㎡에 대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장유면은 김해시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남쪽의 굴암산을 경계로 진해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과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진례면·주촌면, 동쪽은 김해시의여러 洞, 서쪽은 창원시·진해시와 각각 접하고 있으며 이 경계의 불모산과 용지봉등에서 발원하는 栗下川과 大淸川이 농경지를 관개한다. 장유면의 중앙을 관통하는 남해고속도로와 창원터널 등 편리한 교통망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율하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 지역의 역사유적과 문화재로는 무계리의 지석묘와 내덕리의 내덕산성, 유하리의 가야시대 고분과 패총, 삼문리의 중봉사지, 대청리의 장유화상 사리탑 등 적지 않은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2. 주변유적 현황

조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로서 김해시의 서남편에 해당하며 서쪽으로 창원시와 경계를 이루는 해발 720m의 용지봉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과 동편으로 해발 103m 정도의 유하리의 독립소구릉과의 사이에 형성된 충적평야이다. 이곳은 장유면에서 진례와 김해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의 동쪽에 형성된 공장지대이다. 조사대상지역의 동남편에는 해발 100m 이하의 독립소구릉이다수 분포하며 선사시대부터 형성된 많은 유적들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용지봉과 주지봉, 황새봉 등에서 발원하여 조만강으로 유입되는 소지류가 'Y'자상으로 흐르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약 1km에 지점에 양동리고분군(사적 454호)이

위치한다. 양동리고분군이 조만강의 수계를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집단간에서 우위를 점한 것을 감안할 때, 당시 이 일대는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동편에는 유하리 지석묘, 유하리 패총 등 선사시대부터 형성된 많은 유적이 입지하는데 과거 김해평야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교역과 교류 등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1) 대청유적

유적은 행정구역상 장유면 대청리 269번지 일대이며 대청마을 서쪽의 해발 80m의 독립구릉에서 동북방향으로 뻗어 내린 완만한 대지와 동남사면에 해당한다. 장유신도시 개발로 1996. 11. 20~1997. 2. 5에 걸쳐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구의 성격은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석실묘, 조선시대 분묘 등이 확인되었다. 김해지역의 경우 대규모 고분군에 대한 조사사례는 많지만 생활유구에 대한 조사가 빈약한 상황에서 당시의 생활유구가 조사된 것에 의의가 있다. 대청유적은 3~4℃가 중심연대로 당시의 분묘군과 취락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동아대학교박물관·김해시, 『김해시 문화유적분포지도』, 1998)

2) 무계리 지석묘(경상남도 기념물 제151호)

장유면 무계리 366-1번지에 위치한다. 낙동강 하구 삼각주에서 서쪽으로 말굽꼴로 형성된 산자락 끝에 위치하고 있다. 김해지역에 현존하는 지석묘 중 대형급에 해당하는 지석묘로서 상석은 길이 600cm, 너비 270cm, 높이 90cm의 규모이고 직경 10m의 대지상에 자갈돌을 깔고 그 위에 올려놓은 상태이다. 축조형태는 기반식으로 하부구조는 석관이며 출토된 유물은 마제석검 1점, 마제석촉 8점, 양익동촉 3점, 관옥 3점, 홍도편 등으로 『동서문화』제1집에 보고되어 있다.(동아대학교박물관·김해시, 『김해시 문화유적분포지도』, 1998)

3) 능동고분군

김해시와 창원시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720m의 용지봉에서 급경사를 이루면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위치하며 장유 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다. 울산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가'지구에서는 삼국시대 토광묘 1기, 수혈식석곽묘 8기와 석실묘 1기, 토기가마터 1기 등 1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나'지구에서는 목곽묘 27기와 수혈식석곽묘 42기, 조선시대기와가마터 1기가 확인되었다. 고분의 구조와 출토된 유물로 보아 능동고분군의 존속시기는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박천수 외, 『가야의 유적과 유

물』, 학연문화사, 2003)

4) 능동산성

장유면 삼문리 능동마을 북쪽 야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산성의 석축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파괴되어 거의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지형적으로 용지봉(해발 743m)의 줄기가 능동지역에 이어지기때문에 산성으로서의 입지조건이 좋은 편이다. 인근 망덕리에 있는 신기산성과 성격상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상부에서 북쪽으로는 양동산성이 마주보인다. 현재석축은 잔존하지 않고 인위적인 토루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신기산성과 같이 북쪽과서쪽의 경사가 급한 부분은 토성을 쌓고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남서쪽 지역은 석축을 쌓은 토석혼축의 포곡식산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동아대학교박물관·김해시,『김해시 문화유적분포지도』, 1998)

5) 내덕산성

장유면 내덕리 용두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발권상(鉢卷狀)의 토석혼축성으로 길이가 약 **700m**에 달하나 많이 붕괴된 상태이다. 마을에서는 일명 치마산성(馳馬山城)이라 하며 산정에는 **3.1** 운동 기념탑이 있다.(동아대학교박물관·김해시, 『김해시 문화유적분포지도』, **1998**)

6) 내덕리 고분군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산14번지 일대 해발 34m의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한다. 장유신도시 개발에 수반되어 1997년도에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8동, 삼한시대 목관묘 1기, 삼국시대 분묘 87기, 조선시대 분묘 8기 등 모두 10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삼한시대 분묘인 19호묘에서 광형동모를 비롯한 통형동기, 파수부 동검 등이 출토되어 구야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박천수 외, 『가야의 유적과 유물』, 학연문화사, 2003)

7) 유하리 전 김해왕릉

김해시에서 장유로 연결되는 지방도로의 우측 해발 32~35m 사이의 구릉에 위치하며 구산동고분군과 더불어 김해지역의 가장 큰 고분 중 하나이다.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찍부터 가락국 2대 왕인 '거등왕(居登王)'의 무덤 또는 '장군총'이라 전해진다. 고분의 봉분은 원형이며 내부구조는 횡혈식석실이다. 현실의 평면은 정방형, 천장은 궁륭식이며 문비석이 설치되고, 할석으로 묘도의

벽면을 축조하였다. 또한, 벽면과 시상대에 회를 바른 것 등의 특징으로 보아 7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박천수 외, 『가야의 유적과 유물』, 학연문화사, **2003**)

8) 유하리 지석묘

유하리 하손마을에서 장유면 소재지로 가는 지방도로 우측편 논 가운데 지석묘 1 기가 있다. 형태는 개석식지석묘로 상석의 규모가 140×330×80cm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이며 개석의 장축방향은 동 - 서이다. 현재 지석묘의 상석은 논의 경계지점에 걸려 있으며 상석하부에는 경작시 주위의 잡석을 쌓아두었으므로 하부구조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상석의 동쪽 끝부분에는 직경 3cm, 깊이는 1.5cm의 크기의성혈이 2개 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며 주변의 논을 경작할 때 토기편이나 석기편이 간혹 출토되었다고 한다.(동아대학교 박물관·김해시, 『김해시 문화유적분포지도』, 1998)

9) 유하리 마애불

전 김해왕릉에서 북서쪽으로 위치한 해발 107m의 야산 정상부와 가까운 90m지점의 자연암반에 마애불 2구가 위치하며 전체적으로 마멸이 심한 상태이다. 불상의도상적 특징으로 볼 때 동측 마애불이 약사상인 것으로 보아 서측은 아미타상일 가능성이 크다. 마애불의 제작시기는 고려후기 이후로 추정된다.(동아대학교박물관·김해시, 『감해시 문화유적분포지도』, 1998)

10) 유하리 패총

하손마을 뒷산의 남쪽 경사면에 위치하며 유적의 일부가 경작에 의해 파괴되었다. 유물은 대합, 재첩, 굴, 소라 등의 패각과 적색, 갈색, 회색, 회흑색의 토기편 등이 채집되었으며 토기편 중에는 우각형파수와 평저호 저부편 등도 보인다. 이 일대의 선사 및 고대문화 규명에 중요한 유적이다.(동아대학교박물관·김해시, 『감해시 문화유적분포지도』, 1998)

11) 하손 패총

유하리 하손부락 뒷 구릉의 동쪽 사면에 분포하고 있는 패총으로 양동리 고분군과 약 **2km** 떨어져 있고 구릉의 반대쪽에 후포고분군이 있기 때문에 이 고분군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유적으로 추정된다. 패각층에서는 삼한시대 회청색경질토기편과 적갈색연질토기편 등이 채집되었다.(창원문화재연구소·동아대학교박물관, 『금관가야권유적정밀지표조사 보고서』, **1993**)

12) 후포 고분군

양동리고분군과 하손패총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유하리에서 양동리로 연결되는 지방도로의 동쪽 구릉상에 위치한 공장 사이의 남서쪽 사면에 해당된다.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석실분으로 추정된다. 채집된 유물로 미루어 인접한 양동리 유적보다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창원문화재연구소·동아대학교박물관, 『금관가야권유적정밀지표조사보고서』, 1993)

13) 양동리 고분군(사적 제454호)

일찍부터 학계에 소개되어 잘 알려진 고분이다. 1980년대에 문화재연구소가 발 굴 조사한 바 있으며 1990~1996년 동안 4차에 걸쳐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석관묘 1기, 목관묘 10기, 토광묘 10기, 목관묘 451기, 수혈식석관묘 30기, 옹관묘 77기 등 모두 579기의 분묘에서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장신구류 등 다종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적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까지 오랜기간동안 형성된 김해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분묘유적이다.(박천수 외, 『가야의유적과 유물』, 학연문화사, 2003)

14) 양동산성(경상남도 기념물 제91호)

해발 **332m**의 산 정상부에 위치한 퇴뫼식 석축성이다. 김해평야와 낙동강 하구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축조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양동리고분군, 유하리 패총 등이 입지하고 있다. 석축의 규모는 높이 약 **2.5m**, 폭 **2.5m**, 둘레 약 **800m**이며 남북 성문에 초석이 잔존하고, 성내에는 우물터가 있다. 內三山城 혹은 양동산성이라 부르지만 『중보문헌비고(권**27**)』 여지오십오 관방**3**조에 의하면 '가곡산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산성 내에서 가 야토기가 채집되고 인근에 양동리고분군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가야시대 성으로 보기도 한다.(동아대학교박물관·김해시, 『김해시 문화유적분포지도』, **1998**)

15) 천곡산성

가락국때 축조된 성이라 전해진다. 자연지세가 서북에서 동남으로 뻗은 곳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에 걸쳐 약 **1.8m** 정도 높이의 궁형(弓形)으로 흙을 쌓았다. 동쪽 곡간은 계단형 석축이 있었으나 모두 붕괴되어 돌무더기를 이루고 있다. (동아대학교박물관·김해시, 『김해시 문화유적분포지도』, **1998**)

Ⅳ.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장유면에서 진례와 김해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의 동쪽에 형성된 공장지대 내에 위치하며 동쪽은 현재 소나무 숲을 이루는 나지막한 구릉이 형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이러한 구릉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형이었으나 근・현대의 개간으로 인해 구릉이 단절된 상태이다. 시굴조사 당시 3개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한 결과, 2트렌치와 남・북확장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주혈군을 비롯한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어 이 부분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빌굴조사는 유구가 설치된 암갈색사질점토층의 상면까지 제토하여 유구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2.조사내용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조사전 전경 (남동→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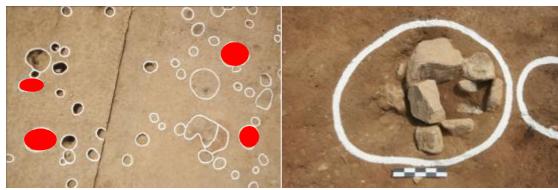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전경 (남동→북서)

조사대상지역은 시굴조사 당시 유구가 밀집된 **2**트렌치를 중심으로 남·북확장부를 포함한 지역이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적심 **8**기, 구상유구 **3**기, 수혈 **2**기, 다수의 주혈이 조사되었다.

1) 적심

적심은 총 8군데에서 노출되었는데 직경 약 1m 내외의 규모로 내부에 약 20~30 cm 크기의 할석들과 흑갈색사질점토가 혼입된 상태로 잔존하였다. 나머지 상부구조는 근대 경작과 삭평으로 인해 훼손되었고 적심석 일부만 남아있어 건물의 배치와 구조 등에 대한 추정에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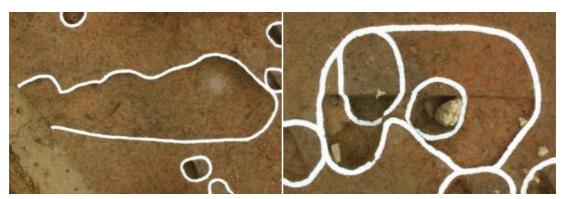
도판 3. 적심 부분전경(남동→북서)

도판 4. 적심 세부(남동→북서)

2) 수혈

수혈은 총 2기가 조사되었다. 먼저 수혈1은 유적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구처럼 세장하다. 장축방향은 남동-북서이며 규모는 길이 220cm, 너비 56cm, 최대 깊이 24cm이다.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상이며 수혈의 북동쪽 끝 부분은 깊이가 24cm로 다른 부분에 비해 깊은 편이다. 내부에는 목탄, 소토와 함께 자기편, 옹기편 등이출토되었다.

수혈2는 유적의 남쪽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가운데가 오목한 타원형이다. 최초 유구 노출 당시, 수혈의 북동쪽 부분에서 피열흔이 확인되었다. 규모는 길이 124cm, 너비 46cm이다. 내부에는 직경 20~40cm 크기의 주혈이 2개소 확인되었는데 축조 양상을 통해 볼 때 주혈이 후대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판 5. 수혈1 조사후 전경(남동-북서)

도판 6. 수혈2 조사중 전경(남동→북서)

3) 구상유구

구상유구는 총 3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면형태를 통해 볼 때 구상유구 $1 \cdot 2$ 의 경우 동-서방향, 구상유구 3은 북-남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면형태는 'U'자상이며 내부에는 목탄, 소토와 함께 자기, 옹기편 등이 출토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되었다. 구상유구2의 경우 내부 조사결과 주혈이 구상유구를 파괴하고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도판 7. 구상유구2 조사중 전경(남동-북서)

도판 8. 구상유구2 토층(서-동)

4) 주혈

본 유적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유구로 직경 15~100cm, 깊이 10~30cm 내외로 다양한 형태의 주혈이 조사되었다. 내부에는 조선시대 퇴적층인 흑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일부 주혈의 경우 목탄 및 자기, 옹기편 등이 혼입되어 있다. 주혈은 정연성이 없이 무질서하며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당시의 생활과 관련하여 설치된 주혈로 추정된다.



도판 9. 주혈 평면(남동-북서)

도판 **11.** 출토유물(백자류)

도판 10. 주혈 토층상태



도판 12. 출토유물(옹기류)

V.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 1. 금번 조사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297-1번지 일대의 혜림기업 공장부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로 적심 8기, 구상유구 3기, 수혈 2기, 주혈 다수가 조사되었다.
- 2. 적심은 총 8곳에서 조사되었으며 직경 1m 내외의 규모이다. 잔존 적심부의 정연성이 관찰되지 않아 건물의 구조와 배치, 복원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곳에 적심을 가진 건물이 최소 2동 이상 배치되었다는 정도만 이해될 수 있다.
- 3. 구상유구와 수혈의 경우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형태와 내부양상에서 정연성이 없어 상시적인 시설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 4. 조사대상지역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주혈의 경우 배치상태 및 규모에서 다양성이 영보인다. 그러나 주혈의 배치가 정연성이 없으며 규모와 형태 또한 매우 상이한 것들이 다량 확인되어 구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전언에 의하면 부곡리는 조선시대 후기에 형성되었으며 이후 마을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규칙성이 없이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80년대 조상대상지역 주변에는 공장신축으로 인해 주거역 내에 있던 창고, 마굿간 등각종 부속시설물들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 5. 조사대상지역에서는 분청사기편, 도기편을 비롯해 소량의 백자와 옹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중 백자편의 경우 태토와 소성상태, 기형을 통해 볼 때 16~17세기의 유물로 추정되며 다량 출토된 옹기편의 경우 조선시대 후기에서 근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볼 때 본 유적은 16~17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근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인간의 주거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6. 금번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적심과 구상유구, 수혈, 주혈 등이 다수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유적의 형성 원인은 당시 사람들의 주거와 관련된 구조가 아닌 마굿간, 창고 등의 부속시설 등이 혼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조사대상지역의 향후처리는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공사진행 중 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 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할 것이다.

(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現場說明會 第99輯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공장조성 예정부지 문화유적

發掘 試掘 調査 現場說明會

인 쇄 일 / **2007**년 **9**월 **4**일 발 행 일 / **2007**년 **9**월 **5**일

編輯·發行/觀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055) 265-9150~3 FAX: (055) 265-9154

E-mail: feaci03@hanmail.net